

## ‘젊은 한국’ 표정상 탈환 자신만만

지동원·손흥민·구자철 등 조광래표 ‘젊은 피’  
 아시안컵 “1차전 상대 바레인 무조건 잡는다”

‘1차전을 잡아라’  
 51년 만에 아시안컵 축구대회 정상에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1차전 승리’가 중요한 숙제가 될 전망이다.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해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보다 젊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했다.  
 특히 공격 라인은 지동원(20·전남), 손흥민(19·함부르크SV) 등 젊은 표정도 모자라 ‘어린’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 대표팀 간판 공격수인 박주영(26·AS모나코)이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중원에서 구자철(22·제주)의 역할이 커지는 등

‘젊은 피’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이번 대회 성적이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다.  
 1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시15분 카타르 도하의 알 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바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 경기 결과가 더없이 중요한 이유다.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34·알힐랄) 등 베테랑들이 건재하지만 지동원, 손흥민, 구자철, 이청용(23·불린), 기성용(22·셀틱) 등 젊은 선수들이 많아 첫 경기의 흐름에 따라 팀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전 바레인과 경기에 이어 2차전은 아

시아축구연맹(AFC)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가 가장 높은 호주(26위)를 상대한다는 점에서도 1차전은 반드시 이겨놓는 것이 마음 편하다.  
 그러나 역대 아시안컵을 보면 1차전에서 한국은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14번 열린 아시안컵에서 11번 본선에 진출한 한국의 1차전 성적은 2승8무1패다.  
 가장 최근 1차전 승리는 1988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9회 대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1-0으로 물리친 것이다.  
 이후로는 1996년 UAE 대회에서 UAE와 1-1로 비겼고 2000년 레바논 대회에서도 중국과 2-2로 승부를 내지 못했다.  
 2004년 중국대회 1차전은 요르단과 0-0 무승부, 2007년 동남아 4개국 공동 개최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1-1로 경기를 마쳤다.  
 게다가 바레인은 상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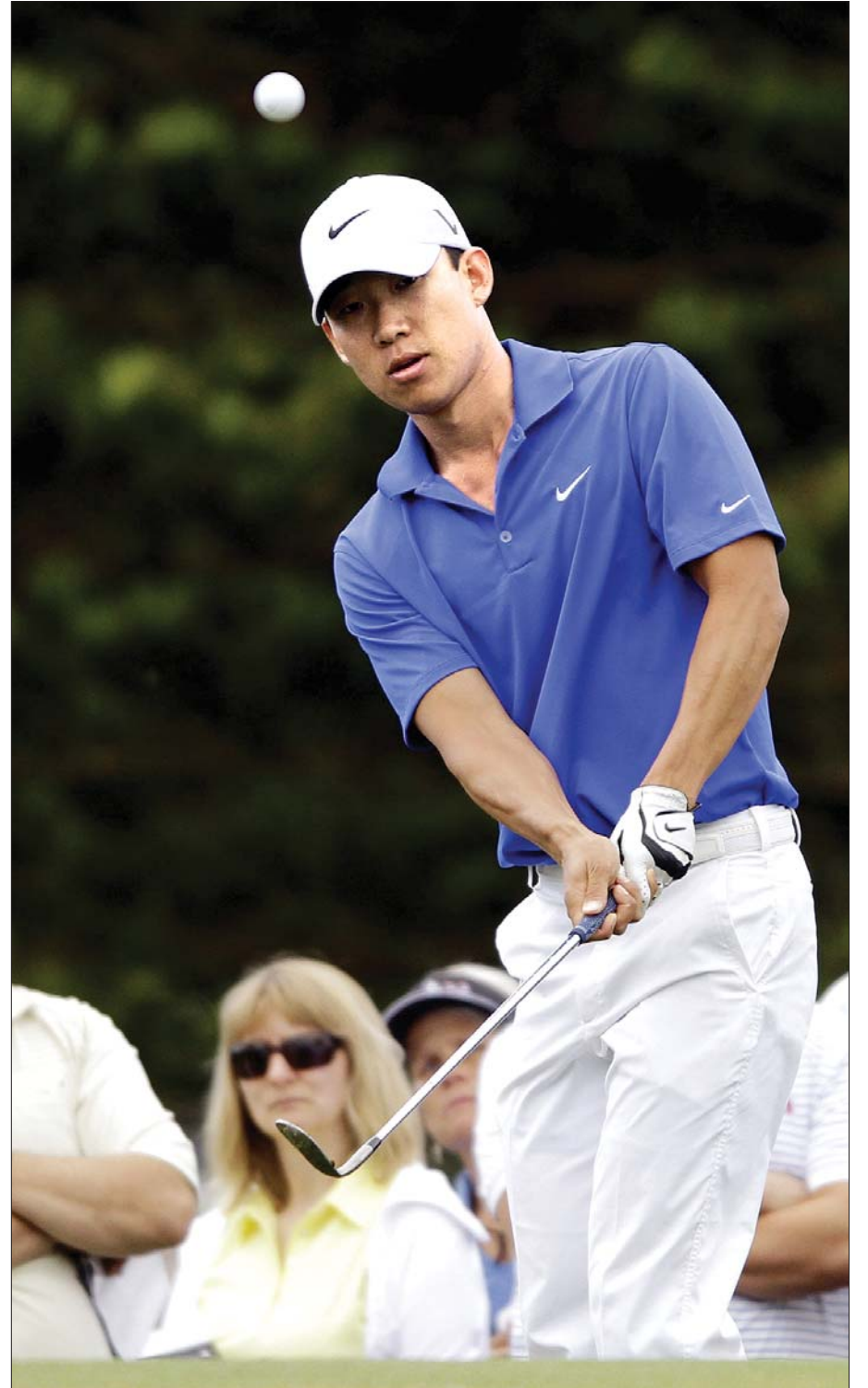
■ 2011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편성

구분	A	B	C	D
팀	카타르 쿠웨이트 중국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요르단 시리아	한국 인도 호주 바레인	이라크 북한 아랍에미리트 이란

■ 2011카타르 아시안컵 한국 경기 일정

일시	구분	장소	상대
11일 오전 01:15	조별리그 1차전	알가라파경기장	바레인
14일 오후 10:15	조별리그 2차전	알가라파경기장	호주
18일 오후 10:15	조별리그 3차전	알가라파경기장	인도

9승4무2패로 앞서 있지만 2007년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만나 1-2로 졌던 기억도 있는 팀이다.  
 구자철은 지난 6일 도하 공장에 도착하자 “호주와 2차전도 그렇지만 바레인과 첫 경기가 중요하다. 비디오를 보며 잘 연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차전 승리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바레인을 꺾는다면 그만큼 51년 만의 정상 탈환을 위한 상대를 출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첫 경기 승리로 ‘왕의 귀환’을 향한 첫 걸음을 가볍게 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크다. /연합뉴스



앤서니 김이 6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2011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개막전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1라운드에서 칩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성·주영 두달 연속 ‘이달의 선수’

한국 축구의 간판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박주영(25·AS모나코)이 나란히 12월의 선수에 뽑혀 11월에 이어 두달 연속 ‘이달의 선수’가 됐다.  
 박지성과 박주영이 유럽 무대에 진출한 이후 두 번 연달아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는 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박지성이 팬들이 뽑은 맨유 12월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팬 투표에서 전체 2만5000여표 가운데 40%의 지지를 얻어 디미타르 베르바토프(38%)와 안데르손(15%)를 제치고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달 연속 이달의 선수가 됐다.  
 박주영도 11월에 이어 12월 모나코의 선수가 됐다. 이날 AS모나코 구단 공식 홈페이지가 시행한 투표 결과 박주영은 70%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달의 선수가 됐다. 2위 스테파니 루피에르(11%)보다 한참 앞섰다. /연합뉴스

## 메인 스폰서 없던 탱크 최경주 SKT 모자 쓰고 우승 3번 더~

(PGA 10승 달성)



메인스폰서 계약 체결

“넘버 8이 오면, 넘버 9와 10은 금방 올 것이다.”  
 SK텔레콤 로고를 달고 2011년 시즌을 뛰게 될 한국프로골프의 간판 최경주(41)가 10승 도전을 향한 강한 집념을 드러냈다.  
 최경주는 7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 T타워에서 열린 SK텔레콤 메인스폰서 계약을 맺으면서 “우승할 때보다 긴장된다. 이제는 허리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돼 최고점을 향해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해 메인스폰서 없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었

을 때는 속상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은 최경주는 “아직도 3~5년을 더 뛸 수 있는 체력을 갖겠다. PGA 투어에서 7승을 올렸는데 올해 1승을 추가하는 고비만 넘기면 9승과 10승은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계훈련에서 병커샷을 집중적으로 연습했다는 최경주는 “병커에서 샷을 하면 두배 이상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근력이 강화된다. 병커를 잡내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며 독특한 병커샷 철학을 소개하기도 했다.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우승에 대한 욕심도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 마스터스에서 공동 4위에 올랐던 최경주는 “지난 대회 13번홀에서 나온 실수가 아깝다.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마스터스 마지막 날 한때 공동 선두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13번홀(파5)에서 두번째 샷을 그린 뒤 병커로 날려 보낸 뒤 결국 보기를 적어냈다.  
 최경주는 “허리 통증이 없어졌고 스윙 스피드 면에서도 나에게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시즌에는 부활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물카 日 니혼TV 김연아측에 사과

‘피겨 퀸’ 김연아(20·고려대)의 훈련 장면을 몰래 찍어서 방송한 일본의 니혼TV(NTV)가 공식 사과했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올댓스포츠는 7일 “NTV가 6일 올댓스포츠 앞으로 공식 사과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올댓스포츠는 “문제가 된 프로그램 ‘진상 보도 반키샤’의 히로유키 오자키 프로듀서는 사과문을 통해 ‘우리는 올댓스포츠의 사

전 승인 없이 로스앤젤레스 훈련장에서 김연아 선수를 촬영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히로유키 PD는 또 사과문에서 “이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 올댓스포츠와 김연아 선수는 우리의 사과를 받아주기를 바란다”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올댓스포츠 측은 “애초 NTV에 사과방송 또는 공식 사과를 요청했기 때문에 NTV의 공식 사과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김연아 선수와 관련된 모든 인터뷰 및 기자회견에서 접근을 금지할 것이라는 기준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앤서니김 현대 챔피언스 첫날 7위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부활을 꿈꾸는 앤서니 김(26)이 버디 행진을 벌이며 시즌을 시작했다.  
 앤서니 김은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 골프장 플랜테이션코스(파73·7411야드)에서 열린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1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쓸어담고 더블 보기 1개를 묶어 4인더파 69타로 선두와 3타차 공동 7위에 올랐다.  
 1번홀(파4)부터 버디를 낚으면서 샷뚱하게 시작한 앤서니 김은 경기 초반 계속 타수를 줄여나가다가 8번홀(파3)에서 더블 보기를 범하며 주춤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 스티브 스트리커(미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날 앤서니 김은 페어웨이 안착률 87%와 그린 적중률 78%를 기록했다.  
 전년도 PGA투어 우승자들만 초청받는 이번 대회에 앤서니 김은 지난해 4월 셀슈스 턴오프에서 2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격을 얻었다. /연합뉴스

###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 GRAND OPEN

### OPEN 기념!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한식 20가지)

#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층별시설안내**

- 5F 벨라지오희(웨딩홀) 카네기홀(연회장)
- 4F 객실, 신부대기실
- 3F 객실
- 2F 객실, 워트니스센터
- 1F 프론트,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연회상담실
- B1F 대연회장, 테백실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객실 인터넷 사용**

객실예약 | (062) 600-9999 |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플렉서빌 옆) | www.hotelarthall.co.kr

## 온가족을 위해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온 가족이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국가대표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비타민하우스와 함께 하세요.

비타민은 비타민하우스 www.vitaminhouse.net / 대표전화 1588-8529